

군산시, 고용위기 지역 탈출 총력

고용노동부, 지정 기간 1년 연장으로 종합대책 마련 총력 청년구직활동수당·청년창업 희망키움 지원 신규 사업 등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 것과 관련 이를 디딤돌로 위기에서 벗어 나기 위한 대책에 힘쓰기로 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군산 등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된 8개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4월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 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결정이 시민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사정의 호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로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창업 희망키움 지원사업 등의 신규 사업과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개소로 소통 공간과 다각적인 창업활동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기반 시설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사업인 훈련연장급여, 생활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근로자와 실직자 및 사업주를 위한 지원사업은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지속 지원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1년동안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어 지정연장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고 고용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다 같이 가벼워지는 건강프로젝트 순창군, 성인 '비만교실' 운영... 15일부터 총 30회

순창군이 15일부터 '제1기 비만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급격한 식생활 변화와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비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군은 8일부터 12일까지 비만교실 참여대상자의 사전 접수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주 3회씩 11주에 걸쳐 총 30회를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사전 접수를 통해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성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군은 기초체력진단과 혈액검사, 혈압, 복부둘레, 체성분검사 등을 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비교 측정해 참여자의 체중과 기초체력, 건강상의 변화 등을 확인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한의사와 전문체조강사, 영양사, 건강매니저 등을 투입해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는 비만침, 한약보조제, 파워로빅, 식사일기 작성에 따른 식이섭취 교육 및 일대일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영근 순창군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순창군민이 건강문제를 깨닫고 스스로 적정체중을 인식하여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고창군은 고창읍 노동저수지에 개간 등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주민 쉼터로 재탄생한 '생태공원-자연마당'을 개관했다. <고창군 제공>

훼손된 노동저수지 '주민 쉼터'로 재탄생

고창군, 주민과 함께 탐방로 개설 등 '생태공원-자연마당' 복원

불법 개간 등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이 주민 쉼터로 재탄생했다. 고창군은 최근 고창읍 노동저수지 '생태공원-자연마당' 개장식을 개최했다. 군은 불법 개간과 모지 조성 등으로 훼손

돼 오던 해당 부지를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 토지를 매입해 자연환경을 복원시켰다. 이 공원에는 습지와 유아놀이터, 숲체험원, 야외학습장, 탐방로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도심 속에서도 역사, 부들, 창포,

연꽃 등을 볼 수 있는 자연형 습지 조성으로 마련돼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켰다. 군은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와 연계해 군민, 학생의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연말까지 수상데크와 탐방로를 완료해 가족·연인들의 산책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 남원 춘향골체육공원 개최 4개종목 18일부터 7일간

'2019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가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이 대회에선 스피드 트랙과 로드, 슬라럼, 인라인 하키 등 4개 종목이 치러진다. 호주, 중국, 일본, 파키스탄 등 세계 16개국 11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롤러 종목으로는 국내 유일의 국제대회이며 아시아 최대 규모 행사라고 남원시는 설명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시민참여형 정원만들기 정읍시, 대상자 모집

정읍시는 시민 참여형 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위한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12일까지다. 참여 대상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10인 이상의 주민공동체와 단체 등이다. 정원 규모는 마을의 공유지와 주민쉼터, 가로 공간 등 면적 100㎡ 이상이다. 시는 9000만원을 투입해 5개소를 선정 개소당 180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 단체는 꽃나무와 야생화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사업대상지 읍·동주민센터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연말에 시상도 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도, 택시 기본요금 6년만에 500원 인상

전북도가 6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최근 전라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현행 기본요금 2800원에서 500원을 인상(14.47%)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거리의 경우 148m에서 137m로, 시간은 35초에서 33초당 100원(중형택시 기

준)으로 변경된다. 이번 택시 운임·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3월 이후 6년만으로 최근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호소하는 택시업계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현재 11개 광역시·도가 인상을 확정했다. 서울·인천은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나머지 9개 시·도는 기본요금을 3300원으

로 인상하게 되며 전북도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했다. 이번 조정된 택시 운임·요금은 시·군에서 서류검토 후 수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시·군별로 인상요금 적용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할증요금은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기존과 동일하며 전주시는 지역별 특성, 운행형태 등에 따라 전주시장이 따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남북협력사업 등 '발빠른 대응'

경제·문화 등 각계 전문가 13명 '남북교류협력위' 구성

익산시가 남북화해 무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현을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 대응을 위한 행정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시가 구성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는 경제, 문화, 학계, 남북관계 전문가 등 13명이 함께한다. 시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협의, 기금 조성·운용·관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역점으로 추진하는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 선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시는 남북관계의 변화 흐름에 맞춰 정부의 남북협력 정책을 점검하고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익산=유영명 기자 yiy@

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협력의 기대감이 조성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유라시아 철도 사업추진을 위한 철도정책계를 올해 1월 신설했다. 아울러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과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 시장은 "익산시는 익산역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어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 급매 - 8500만원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7,5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

문의. 010-6834-7400